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9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145만 광주 시민 건강 지킴이
“전 직원 완주 꼭 해낼 겁니다”

“1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펼쳐 많은 시민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출전 소감이 다.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래요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는 145만 광주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기록보다는 동호인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완주하는데 이번 대회 참가 의의를 두고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표정에는 미소와 함께 여유가 묻어난다.

동호회와 함께 웃고 웃어야 하는 역할이

기에 더욱 부드러움이 넘쳐 흐른다.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직원간 화합과 친목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결속력이 더 굳게 다진다. 직원들은 평소 ‘생활체육 한 종목 이상 즐기기로’ 체력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틈틈이 자체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건강체크’와 함께 친목도 도모한다.

등산과 골프를 즐겨온 김창준 회장은 “이번 대회 5km 완주를 목표로 주말엔 등산, 평일엔 걷기를 꾸준히 해왔다”면서 “전직원이 참가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주해 ‘건강한 생체협’을 보여 주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다.

선수 못지 않는 배드민턴 기량을 갖춘 피길연 사무처장도 좋은 기록을 보여줄 것으

로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필오 총무팀장, 박상복 사업팀장, 한때 복서 꿈을 키웠던 양광열 진흥 주임 그리고 노창완 사업주임도 평소 탁구나 걷기로 체력을 다져와 스포츠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기세다.

수영·걷기 등 체력 다져

전정민 사업계장은 ‘중년층 박태환’으로 불리울 만큼 탁월한 수영실력으로 폐활량을 키워와 이번 대회의 직원 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여직원들의 당찬 결의도 대단하다. 고은애 서무주임은 빨리맨스로, 김미경 소외계측지도자는 에어로빅과 수영으로 그리고 박영아 노인전담지도자는 요가로 키워온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이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유연성과 체력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생체협 마스크 코트’ 손남희 실장도 “합회 명예를 걸고 뛰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전국스포츠클럽교류촉진·전국족구클럽리그 본선 등 다양한 전국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광주시생체협이 올해도

동호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확대

특히 이제껏 생활체육을 함께 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준 회장은 “앞으로 청소년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더욱 늘려가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결속력이 더욱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광주시생체협의 힘찬 질주를 기대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꿈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KIA 타이거즈의 서재용·장성호·유동훈·김상훈(사진 왼쪽부터)이 파세오 구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프로야구 4월 4일 플레이 볼

KIA, 두산과 잠실구장서 시즌 첫 경기

KIA 타이거즈가 오는 4월4일 잠실구장을 찾아 두산 베어스와 2009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은 4월4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오르게 되며, 팀당 133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4월4일 열리는 개막전은 전년도 1~4위 팀이 5~8위 팀을 홈으로 불러 치르는 방식으로 주말 2연전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위에 머물며 4강 진출에 실패한 KIA는 원정경기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한국시리즈 2연패의 SK 와이번스는 한화 이글스를 문학구장으로 불러들이며, 준우승

팀 두산 베어스는 잠실에서 KIA와 첫 격돌을 한다.

사직구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와 히어로즈가 맞붙고, 대구구장에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LG 트윈스를 상대하게 된다.

올해부터 팀당 경기수가 126경기에서 133경기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1~4위팀은 홈경기가 67경기(원정 66경기)로 한 경기 늘었다. 5~8위팀이 홈에서 치르는 경기는 총 66경기이다.

어린이날에는 두산·히어로즈·한화·롯데

가 각각 LG·KIA·삼성·SK를 손님으로 맞아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은 7월25일 열리며 장소는 미정이다.

주말 3연전 중 비로 취소된 경기는 이동일인 월요일에 치러지고, 9월에 편성된 32경기는 우선으로 연기된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된다.

“가을 잔치” 일정도 다소 변화가 있다. 지난해 7전4선승제로 치러졌던 플레이오프 일정이 변동돼 올해부터 포스트시즌은 준플레이오프(5전3선승제)-플레이오프(5전3선승제)-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로 환원된다.

경기 시작 시간 및 시즌 시범 세칙은 나중에 일괄 발표된다.

시즌 일정이 발표되면서 2009시즌 4강을 다투는 KIA 선수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투·포수조가 꿈을 찾으면서 전지훈련이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고, 야수조도 21일 국내에서의 마지막 휴식을 갖고 전지훈련 체비에 나섰다.

야수조는 2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원섭 연봉 9천만원 재계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원섭이 지난해보다 91.5% 인상된 9천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지난 2001년 두산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김원섭은 2003년 KIA로 이적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344타수 105안타 0.305의 타율과 30타점 21도루를 기록했다.

투수 장문석은 9천8백만원에서 23.5% 삭

감된 7천5백만원에, 이동현은 3천2백만원에서 21.9% 삭감된 2천5백만원에 각각 연봉 도장을 찍었다.

KIA는재계약 대상자 52명 중 49명과 계약을 마무리지으면서 94.2%의 재계약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담양다이너스티 설에도 문연다

함평다이너스티는 설 휴장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전국 44개 골프장이 휴장없이 손님을 받는다.

또 73개 골프장은 설날(26일)만 휴장하며 46개 골프장은 사흘 동안 문을 닫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0일 회원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영업 계획을 조사해 홈페이지(www.kgba.co.kr)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협회는 폭설이나 강추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휴장 계획은 변경될 수 있어 해당 골프장에 전화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북

골프장 휴장 계획. ▲설날(26일)만 휴장=레이크힐스순천, 배어리버, 상매힐리산, 승주, 전주상그릴라, 함평다이너스티, 해운대, 화성상록, IMG내셔널 ▲휴장 없음=골드레이크, 광주, 군산, 남광주, 담양다이너스티, 아크로, 클럽900, 파인힐스

체육회-올림픽위 분리방침 문화부에 해명 요구

체육단체 구조조정을 둘러싼 체육계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20일 태릉 국제스케이팅장 회의실에서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회와 KOC의 분리방침에 대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합동회의에서 이연택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무부처 관계자가 체육회장을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다는 발언은 89년 역사의 체육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 한 뒤 “해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식 사과와 문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재기 사무총장은 “문화부가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려는 방침을 폐기했다고

구두로 통보받아 임시 대의원총회와 위원총회를 열지 않았는데 또 분리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문화부에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대다수 이사들은 문화부의 관치 체육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체육회와 KOC 분리방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위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반면 문화부 관계자는 “체육회 구조조정 방안은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인데 지면 사정상 그렇게 보도된 것 같다”며 “체육회의 요구대로 특별히 해명할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차기 회장 불출마 시사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뜻을 밝혔다.

이연택 회장은 20일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체육회 이사회 및 KOC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취임 당시 말했듯이 체육계의 자주와 자율, 자치 확립을 통해 체육 선

진화에 노력을 것이라고 했고, 이를 임기 4년의 후임회장에게 물려주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뒤 “최종적인 입장은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연택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회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 등에서 재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보류한 채 “취임 당시 밝힌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연합뉴스